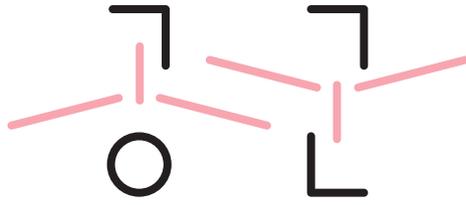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http://afzine.co.kr>



2022
04
5 2 6



Contents

04	기획특집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 그리고 우주에 바친다
12	기획특집	나눔을 함께하는 터전, 나눔터
<hr/>		
16	Aero Detail	공대지 정밀유도무기
22	무에서 유를	철전(鐵箭) - 목숨 걸고 활을 당기는 육량전
26	내 옆의 공군인	조신혜 중사
32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지(앞)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와 지구관측용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궤도비행하는 공군사관학교(아바드 스튜디오)

표지(뒤) 자연을 사랑하는 공군인(자토 작가)

발행일자 2022년 4월 1일(통권 제526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박인호

편집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집감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획·편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김용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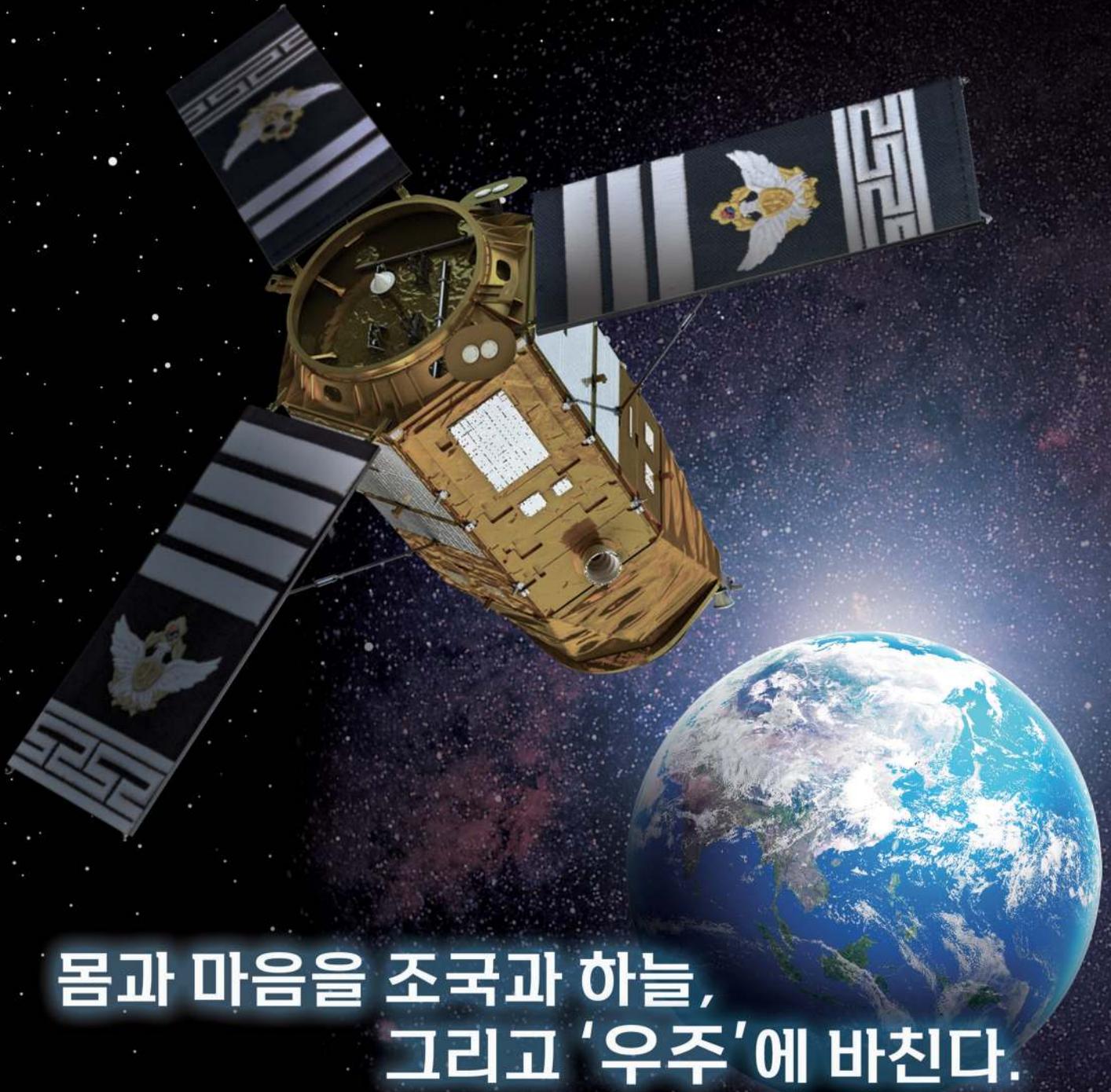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2030091)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 | | |
|-------|----------|-------------------------------------|
| 40 | 한 달, 한 권 |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
| 42 | 명상을 말하다 | 가벼운 마음 |
| 44 | 영화로운 나날 | 어느 날 지구에 혜성이 충돌한다면? |
| 46 | 클래식 톡톡 | 길기만 한 클래식 음악 |
| 48 | 트렌드가 보인다 | 고객이 주인 되는 디지털 브랜드 공간 |
| <hr/> | | |
| 50 | 생각하는 그림 | 가면이 아니라, 진짜 얼굴입니다 |
| 52 | 공군인의 편지 | 사랑하는 할머니께
(제7항공통신전대 기지대대 일병 이희찬) |
| 53 | 책 읽는 공군 | 긍정과 사랑으로
(제1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일병 노권수) |
| 54 | 수용의 미학 | 구구소한도 |
| 55 | 마음의 소리 | 독자 참여 코너 |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 그리고 '우주'에 바친다.

하늘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는 공군의 정예 장교 양성 기관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 그리고 우주에 바치기 위해 생도들은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할까. 공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항공우주특성화교육으로 내놨다. 지난 2016년, 항공우주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는 교육체계 특성화 계획을 추진했으며, 이론을 시작으로 실습과 훈련으로 이뤄진 단계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주공학과를 신설해 우주 교육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생도들은 우주공군의 초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머지않은 미래에 확장될 공군의 역할을 미리 체험하고 있다. 항공우주특성화교육 현장에서 본 그들의 눈빛은 또렷하고 맑아 보였다.

항공우주특성화교육 1단계: 기초학습

공사는 항공우주특성화교육을 3단계(기초학습/체험형 실습/임무형 훈련)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기초학습단계에서는 기초이론 교육을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항공기 및 인공위성 비행 원리를 학습한다. 2학년 생도 전원은 가장 먼저 항공공학개론과 우주공학개론 과목을 통해 항공우주분야 이론을 접한다.

항공공학개론은 기본적인 항공기의 비행 원리, 항공기 구조, 추진기관 등 항공기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과목으로, 기본 이론교육 외에도 전산 실습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XFLR5, X-Plane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과제를 통해 생도들은 항공기 날개 단면을 설계하고 비행환경에 따른 공력 특성을 해석하며, 직접 설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상의 날개를 부착한 항공기와 기존의 항공기를 비행 시뮬레이션에 적용해봄으로써 비행특성을 비교해 확인한다.



다양한 날개 형태에 따른 공력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XFLR5 프로그램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X-Plane 프로그램

우주공학개론은 우주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우주 비행 원리와 궤도 역학 등 전반적인 우주 비행체 운영과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우주공학개론도 항공공학개론과 같이 기본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과제를 수행하는데, STK(Systems Tool Kit) 프로그램을 활용해 임무에 따른 궤도를 생성하고 지상국과의 교신 가능 시간과 지상국의 방위각 등을 분석한다. 또한, 위성의 대표적 궤도 전이 방법인 호만 전이(Hohmann transfer)를 실습하고 다수의 위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군을 설계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위성 궤도를 생성하고 예측해보는 STK 프로그램

항공우주특성화교육 2단계: 체험형 실습

1단계인 기초학습단계는 기초이론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을 진행했다면, 체험형 실습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항공 우주비행체를 직접 설계하고 더 나아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비행 역학 이론과 비행체의 특성을 파악한다. 체험형 실습 과정은 관련 전공인 기계, 전자, 컴퓨터, 항공, 시스템공학과 등의 교수가 함께 강의에 배정되는 융합교과 과정으로, 학생들은 조를 이뤄 mUA (micro Unmanned Aircraft: 초소형 무인항공기)와 위성의 시스템을 제작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이 체험형 실습단계에서 습득한 지식은 4학년 전공 교과 과정인 항공우주 특성화 심화 학습 및 융합캡스톤 과정의 기초가 된다.



mUA 설계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mUA, 즉 초소형 무인항공기 제작 교육은 개념 설계, 비행체 제작, 조종 및 시험비행으로 나뉜다. 학생들은 항공비행체의 개념 설계를 위한 이론과 설계 프로그램 활용법을 먼저 익히고, 3D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 설계한 항공기를 조립한다. 항공기 조종에 필요한 여러 전자부품까지 모두 부착하면 시험비행으로 성능을 테스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항공기 시스템 설계 과정과 비행 역학 기본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공사는 동체 부품이 조립된 완제품에 날개를 설계해 제작하던 기존 방식에서 2022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비행체의 동체부터 날개까지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비용이 기존 대비 약 80% 절감돼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제작 단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기체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 시스템 제작 실습은 기본 임무와 확장 임무 구현으로 나뉜다. 기본 임무는 영상 촬영 및 전송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위성의 구조부와 전원부를 제작한다. 확장 임무는 조별로 창의적인 임무를 선정하고 구현하는 것으로, 임무 제안서 작성을 시작으로 실습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 등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위성 시스템을 실제로 설계하고 제작해보는 실습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구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위성의 가장 기초적 기술인 지상국과의 통신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익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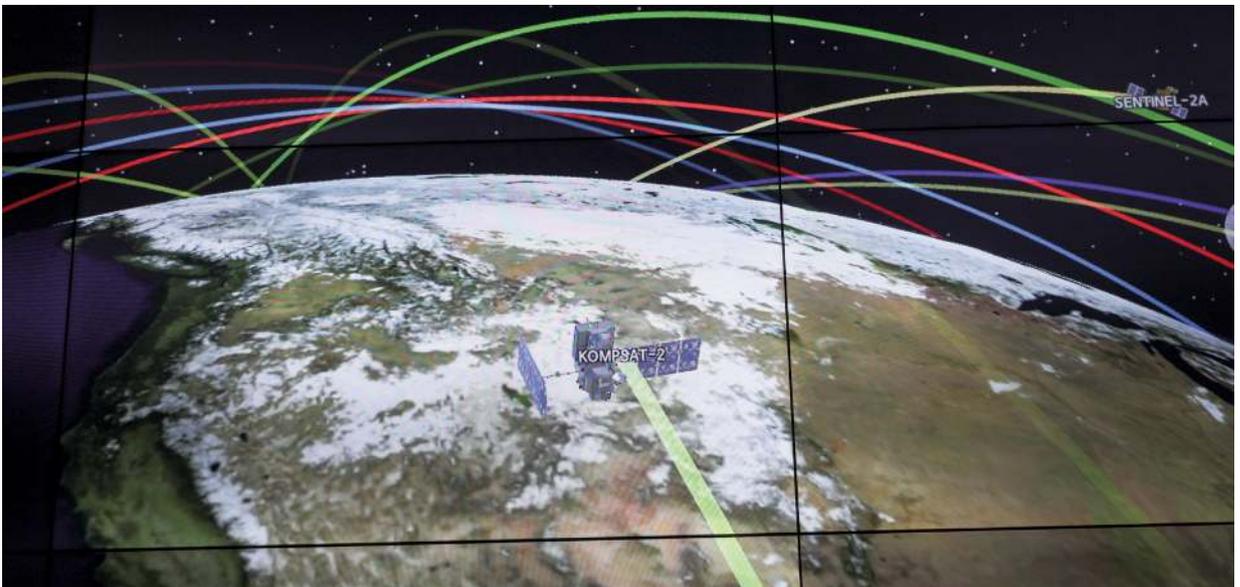
위성 시스템 제작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항공우주특성화교육 3단계: 임무형 훈련

무인 항공기가 미래전 주요 전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군에서도 UAS(Unmanned Aircraft System: 무인항공 시스템) 활용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UAS는 미래 스마트 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아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적 전투 의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로 활용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정보감시 및 정찰이 가능해 정보 중심의 미래전에서도 필수적 요소로 꼽힌다. UAS를 이용하면 고고도에서 장시간 체공이 요구되는 임무와 적 대공 위협 하 교란 및 파괴 임무와 같은 위험한 임무, 그리고 오염 및 감염 환경에서의 감시, 정찰, 기상관측 등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UAS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사는 UAS 임무형 훈련을 항공우주특성화교육의 세 번째 단계로 계획해 3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단계인 실습 교육과 마찬가지로 생도들은 조를 이뤄 훈련에 임한다. 각 조원은 장비 통제 및 지휘, 드론 조작, 지상국 운영, 카메라 감시, 보고 및 상황전파로 역할을 나눠 임무 수행 훈련을 한다. 이 단계는 크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으로 구분된다. 이론교육은 UAS의 역할과 기술 발전 현황, UAS의 군사 작전 임무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며, 실습훈련은 임무계획에 따라 회전익 드론과 고정익 드론을 운용한다. 생도들은 드론 조작법과 임무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드론의 특성을 이해하고 드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등을 함양한다. 수색, 조류퇴치, 화생방 오염지역 탐지 등 앞으로 공군에서 더욱 확장될 드론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공사는 인공위성 운용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인공위성 운용훈련 실습실을 구축했다. 18개 스크린으로 이뤄진 대형상황전시기를 통해 인공위성 운용 실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며 위성 운용훈련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이론교육을 우선 이수한 생도들은 가상의 위성을 선정하고 특정 지형을 촬영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이후 위성이 보낸 데이터를 수신해 분석하며 위성 운용 절차를 습득한다. 공사는 2023년까지 인공위성 운용 실습 관제체계를 구축해 실제 위성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성의 임무를 분석하는 인공위성 운용 실습 프로그램

항공우주특성화교육 심화 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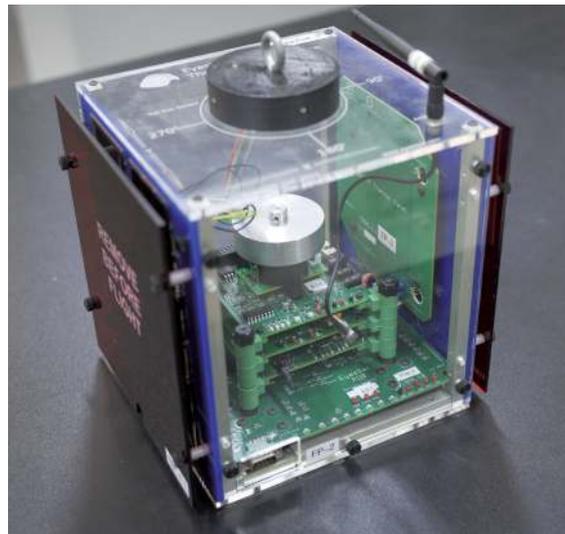
3단계로 이뤄진 항공우주특성화교육은 2학년, 3학년 생도 전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본인의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생도가 기본적으로 3단계에 걸쳐 항공우주특성화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 중 항공공학, 우주공학을 전공하는 생도들은 4학년 때 심화 학습에 돌입하게 된다. 이 심화 학습 과정에서 생도들은 자체적으로 임무를 선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기 및 초소형 인공위성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시험비행까지 한다. 항공공학과, 우주공학과 생도들은 1학기에 각각 항공기 설계 실습, 우주비행체 설계 실습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각 과목을 통해 생도들은 항공기와 초소형 위성의 설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과 방법, 절차를 숙지한다.

항공기 종합 설계 실습

항공기 종합 설계 실습 과정은 무인 항공기를 포함해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항공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시험비행하는 과정이다. 생도들은 교육을 통해 비행체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항공기 종합 설계 실습 과정은 항공우주공학 전공 과정 전체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1학기에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실습을 수행하고 2학기에는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비행체를 제작하여 시험비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우주비행체 종합 설계 실습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위성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이 소형화되어 비교적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인공위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우주비행체 종합 설계 실습 과정은 그간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도들이 초소형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하고 발사해 운용함으로써 향후 국방 우주 자산 운용 등 우주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우주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된다. 생도들은 인공위성의 임무선정 등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위성 제작과 기능 시험을 통해 4년 주기로 시험 모델¹⁾과 비행모델²⁾ 초소형 인공위성을 각 1대씩 발사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도들이 제작한 초소형 위성

1) 발사 전 모든 구성품과 서브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테스트하는 위성 모델
2) 실제 우주로 발사되는 위성 모델

현재 공사 항공우주특성화교육의 제일선에서 정예 우주공군의 초석이 되기 위해 학구열을 높이는 생도들을 만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AF

2학년 때부터
항공우주특성화
교육을 줄곧 받아
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좋았습니까?

강영진 생도(4학년/71기): 이론 위주의 다른 학위 교육과 비교했을 때 항공우주특성화교육은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보고 항공기나 드론을 직접 만져 보며 실습할 수 있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민규 생도(4학년/71기): 저는 평소 우주에 관심이 많아 STK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교에서 개최한 학술 대회도 참가한 적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운용하고 있는 위성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 있어 임관하고 나서도 우주와 관련된 임무를 하게 된다면 현재 배운 것을 토대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AF

항공우주공학과
만의 장점은 무엇
인가요?

강영진 생도(4학년/71기): 인공위성이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임관 후 공군에서 어떻게 활용해볼 수 있을 지 고민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김민규 생도(4학년/71기):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들이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파견을 나가 우주 선진국의 교육체계를 경험하고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김가연 생도(3학년/72기): 항공우주분야의 중요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을 임관하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하 생도(3학년/72기):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항공우주교육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 엔진, 드론, 위성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AF
항공우주특성화 교육을 받으면서 보완했으면 하는 점도 있을까요?

강영진 생도(4학년/71기): 국가 우주력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무인기의 역할도 확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인기 관련 교육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연 생도(3학년/72기): 2학년 때 한 학기에 두 가지 실습(mUA, 위성 시스템 제작)을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육 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저희가 제작한 결과물을 비교, 분석해보며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 생도(4학년/71기): 빠르게 발전하는 우주산업에 발맞춰 저희가 교육 시 접하는 전산 프로그램들도 업그레이드되고 있지만, 가끔 프로그램 버전이 낮아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면 더 다양한 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F
우주공군의 초석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강영진 생도(4학년/71기): 현재까지 다양한 항공우주교육을 받았는데 임관 후에도 배운 것을 잘 활용해서 현재의 평화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든직한 공군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민규 생도(4학년/71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임관 후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복무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임관 후 독일 위탁 교육 기회를 얻게 됐는데 공학 선진국인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해 공군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김가연 생도(3학년/72기): 입학 후 항공우주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질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주하 생도(3학년/72기): 공군 구호 ‘하늘로 우주로’를 마음에 새기며, 발전하는 우주 교육을 마지막까지 잘 이수해 어디서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AF**

대한민국의 하늘과 우주 공군이 지킵니다

2022년 1월부터 공군 우주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공군은 국방우주력의 중심으로서 우주작전 개념을 구체화하고,
우주력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터전, 나눔터

봉사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일에 몰입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봉사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장애인을 위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임, ‘나눔터’는 8년째 장애인 시설을 찾아 한결같은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는 공군 부사관들이다.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나눌 때 더욱 행복을 느끼는 이들을 만나봤다.



나눔터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응열 원사

김응열 원사는 1993년도부터 부대 내 봉사 동아리였던 ‘나눔터’에 가입해 부서관 선임들과 함께 사회 소외 계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유아 시설과 장애인 시설에서 줄곧 봉사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나눔터는 주력 선임들이 전역하면서 점점 흐릿해져 갔다. 김 원사는 이후 현재 소속 부대인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이하 ‘55전대’)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는 주변의 몇몇 동료들과 함께 봉사를 지속해왔다. 그러던 중 봉사를 좀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사라진 나눔터를 다시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2015년, 김 원사는 여느 때와 같이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여성 중증 장애인 시설 ‘성보나의 집’을 우연히 방문했다. 그곳에서 봉사를 하며 큰 시설 규모에 반해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였을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었던 김 원사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뜻을 모았다. 처음에는 5명이 모여 시작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같은 뜻을 가진 후배들과 가족들이 동참했다. 매년 꾸준한 봉사를 이어온 결과, 나눔터에는 현재 현역과 예비역을 포함해 약 30여 명의 인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매달 봉사를 이어가기 위해 시설 이용자 등 타 인원과 접촉하지 않고 시설 외부에서만 작업하는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는 나눔터 회원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되면 나눔터 회원들은 충북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성보나의 집으로 모여든다. 봉사 활동 초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던 이들이었지만, 봉사 활동 8년 차로 베테랑이 된 이들은 다들 척척 알아서 준비한다. 정비, 공병, 수송 등 공군에서 다양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환경미화, 시설 보수 등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다. 시설 정리정돈은 물론이고 배수로 정비, 진입로와 시설 주변 제초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 창고 개축, 계단과 주차장 등 시설 보수까지 그야말로 성보나의 집 곳곳에는 이들의 손을 거쳐 가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장비를 챙겨 밭으로 향하는 나눔터 회원들

성보나의 집 뒤편에는 널찍한 밭이 자리 잡고 있다. 그 크기만 자그마치 5,000평에 달한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 얻은 작물의 일부는 시설 이용자의 식사 재료로 이용되고 남은 작물은 판매해 그 수익금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이 나눔터의 주된 활동이다.

“밭농사를 지원했던 것이 봉사 활동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동참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부터 해나가야 오랫동안 함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 활동 현장에서 본 나눔터 회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취재 당일에는 올 한 해 농사를 지을 밭을 일구고 퇴비를 뿌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누군가 뿌리기 좋게 퇴비 포대를 칼로 베어 놓으면, 다른 누군가가 퇴비를 붓고 땅에 흩뿌린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쌀쌀한 초봄 날씨에도 회원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다. 여기저기로 흩날리는 퇴비 포대를 한데 모아 마무리하는 듯했으나, 이들은 더 넓은 밭으로 향했다. 그렇게 한참을 작업한 끝에 하루 일과가 마무리됐다.



밭에 퇴비를 붓고 있는 나눔터 회원들

봉사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별 도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시설의 많은 관계자와 이용자분들이 저희를 아주 해맑게 맞아 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정말 보람차죠.” 나눔터 창립 회원 중 한 명인 차상언 준위는 보람이야말로 한결같은 봉사 활동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곤 해요.” 남을 위한 봉사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게 해준다.

나눔터 회원들은 봉사 활동을 지속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장애인을 보면 무서워하고 피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먼저 다가가요. 이제는 봉사 가는 날이 되면 저보다 아이들이 더 기대해요.” 4년째 자녀들과 함께 나눔터 활동을 해 온 이옥인 상사는 자신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봉사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 “봉사를 가야 해서 이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아예 일정을 비워두고 있어요. 농사에 직접 참여하다 보니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소중함도 함께 배워가는 것 같아 흐뭇하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수줍게 봉사하러 오던 아이들은 이제 직접 삽을 들고 봉사에 참여한다.



본인 키만 한 삽을 들고 봉사에 참여하는 아이

이들 대부분은 55전대 정비대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임무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을 함께하다 보니 소통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하사부터 준위까지 부사관 전 계급이 한데 모여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온 덕이다. 나눔터 회원들은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맡은 임무에도 철저히 임하고 있다.



소통하는 나눔터 회원들

“주저하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나눔터 회원들은 봉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조금씩 있는 것 같다”며, “함께 하자는 권유를 기다리기보다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시작한다면 분명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게 나눔터의 목표입니다. 특히, 부사관 선후임과 그 가족들이 많이 동참해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봉사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이웃 사랑을 널리 확산하기를 소망합니다.” 김 원사는 앞으로의 포부를 이야기하며, 늘 함께 해주는 동료들과 가족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고된 활동을 모두 마친 나눔터 회원들은 따뜻한 국밥을 나눠 먹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에 분명 봄이 왔음을 느꼈다. **AF**



공대지 정밀유도무기

레이저 유도폭탄(LGB: Laser Guided Bomb)

자유낙하 방식의 일반목적 폭탄은 풍속, 풍향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밀 폭격에는 한계가 있다. 유도폭탄은 이러한 일반목적 폭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다. 유도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과 미국에 의해 소규모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에 의해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전에서 유도폭탄의 가치가 입증된 것은 베트남전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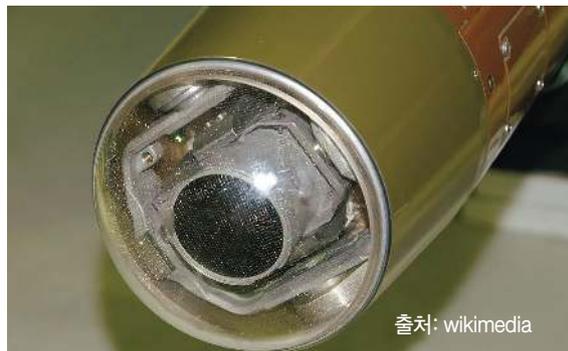
베트남전 당시 미국은 1965년부터 4년 동안 연 600대의 폭격기를 동원하여 폭격하고도 탄호아 철교를 파괴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도폭탄을 새로 개발하고 나서는 단 한 차례 폭격만으로 탄호아 철교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이때 사용되었던 신형 정밀유도무기가 바로 레이저유도폭탄이다.

레이저유도폭탄에 대한 연구는 1965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 완성된 레이저유도폭탄은 1968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작전 운용되었고, 이후 6년 동안 레이저유도폭탄은 TV 유도폭탄과 함께 총 25,000여 발이 18,000여 개의 표적을 파괴하는데 사용되었다.

레이저유도폭탄은 일반목적 폭탄에 레이저 유도키트를 추가하여 완성된다. 이때 개조되는 레이저 유도키트를 페이브웨이(Paveway) 키트라고 한다. 페이브웨이라는 명칭은 레이저유도폭탄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명에서 유래했다.



실전 사용된 최초의 정밀유도폭탄 프리츠 X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는 페이브웨이 III 레이저유도폭탄 탐색기



출처: David Monniaux

페이브웨이 II 레이저유도폭탄들

레이저유도를 위한 페이브웨이 키트는 레이저 탐색기, 컴퓨터, 일회용 배터리, 조종용 카나드 등이 포함된 유도 및 제어부와 비행 안정성을 위해 폭탄 후방에 장착된 핀으로 구성된다. 레이저유도폭탄이 표적에 유도되는 원리는 지상의 특수부대나 항공기가 표적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폭탄 앞 레이저 탐색기가 표적에서 반사된 레이저를 감지하고, 반사된 방향으로 조종용 카나드를 움직여 폭탄을 표적에 유도한다.

‘페이브웨이 III’ 시리즈는 최종 단계인 레이저 유도 이전에 중간 단계부터 디지털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하는 2단계 유도방식과 대형 핀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개선 덕분에 항공기는 보다 원거리와 저고도에서도 레이저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등장한 ‘페이브웨이 IV’ 정밀유도폭탄은 GPS 유도방식을 추가하여 레이저 조사가 곤란한 악기상 상황이나 GPS 교란 상태에서도 양호한 유도성능을 보이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레이저유도방식을 사용한 유명한 폭탄으로는 벙커버스터로도 잘 알려진 벙커파괴탄과 동굴파괴탄이 있다. 걸프전과 아프간전에서 벙커와 동굴을 파괴하기 위해 각각 사용된 벙커파괴탄(GBU-28)과 동굴파괴탄(GBU-37)은 지하동굴이나 벙커 또는 바위 등에 설치된 적의 주요 지휘통제소나 설비를 파괴하기 위해 관통력을 향상시킨 특수한 유도폭탄이다.

레이저유도폭탄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GPS 유도방식과 비교하여 전천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탄착 오차와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투기 주요 정밀유도무기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GBU-38 JDAM 정밀유도폭탄

GPS¹⁾ 유도폭탄

GPS 정밀유도폭탄은 앞서 페이브웨이 계열 레이저유도폭탄과 마찬가지로 일반목적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추가하여 재래식 폭탄을 스마트 폭탄으로 바꾸어주는 개념의 무장이다. GPS 정밀유도폭탄이 레이저유도폭탄과 외관상 크게 다른 점은 레이저유도폭탄에는 폭탄 앞부분에 레이저 감지 센서와 유도장치가 부착된 반면, GPS 정밀유도폭탄은 폭탄 뒷부분에 GPS 안테나와 유도용 날개 키트가 부착된다는 점이다.

GPS 정밀유도폭탄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JDAM²⁾ 폭탄이다. JDAM은 걸프전 이후 고정된 지상 표적이나 정박 중인 함정에 대한 전천후 정밀 공격이 가능하면서도 저렴한 무기체계가 필요하여 개발된 폭탄이다. JDAM은 일반목적 폭탄(MK-82/83/84)이나 관통폭탄(BLU-110/109) 등에 키트 형태로 결합되어 사용되며, 코소보전에 최초로 사용되면서 실전에서의 유용성을 입증했다.

JDAM보다 작은 SDB³⁾ 폭탄도 대표적인 GPS 정밀유도폭탄 중에 하나다. SDB 폭탄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내부 무장 공간이 제한된 항공기에 폭탄의 크기를 줄여 최대한 많은 수의 폭탄을 탑재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SDB는 250파운드(lb) 정도로 소형화 되었지만 기존의 500파운드(lb) 폭탄보다 오히려 관통력이 커지고 부수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JDAM, SDB 등과 같은 GPS 정밀유도폭탄의 운용개념은 먼저 임무 지원 장비를 이용해 전투기에 표적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를 통해 폭탄에 GPS 타이밍, 표적 좌표, 신관 설정 자료가 전송되면 폭탄 투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는 마치게 된다. 이후 GPS 정밀유도폭탄은 비행 중인 항공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위치, 속도 자료를 전송받아 자료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한다. 비행 중에 새로운 표적을 공격해야 할 경우, 이륙 전에 설정한 표적을 변경하여 새로운 표적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무 지역에 도달하기 전 조종사는 폭탄의 GPS 시스템을 동조시키기 위해 수평비행을 실시하고 폭탄 투하 가능 영역에 도달하면 폭탄을 투하한다. 폭탄 투하 후 유도와 관련된 일체의 조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곧바로 안전하게 전장을 이탈할 수 있다.

1)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2) 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합동직격탄
 3) SDB: Small Diameter Bomb, 소직경폭탄



GBU-39 SDB 정밀유도폭탄



출처: Mztourist

GBU-53 복합유도폭탄

TV나 레이저 유도방식의 유도폭탄은 기상악화 시 운용에 제약이 있다. 반면 GPS 정밀유도폭탄은 기상에 제약이 없어 전천후, 주야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GPS 정밀유도폭탄은 정밀도가 다른 유도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폭탄 투하 후에는 목표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에는 GPS 정밀유도폭탄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저 유도방식과 GPS 유도방식을 통합하는 추세로 정밀유도폭탄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대표적인 것이 레이저 JDAM 폭탄, 복합유도폭탄이다. 레이저 JDAM은 레이저 유도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된 표적에 대해 높은 정밀도로 공격이 가능하며, 특히 기존 JDAM이 곤란했던 이동표적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복합유도폭탄은 GPS, 레이저 유도방식뿐만 아니라 영상 적외선 유도방식까지 추가되어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이동표적과 긴급표적 공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활공형 정밀유도키트

최근 전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JDAM, SDB 폭탄은 정밀유도무기가 미래 항공전에서 필수적인 무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하지만 최신 정밀유도무기에도 단점이 있다. 정밀유도무기는 신형 전투기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고, 개량되지 않은 구형 전투기에는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투기가 정밀유도무기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장 운용에 필요한 인터페이스(MIL-STD-1760)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비행운용 프로그램도 해당 무장의 운용을 지원해야 한다. F-4, F-5, 미라지Ⅲ와 같은 구형 전투기에 JDAM, SDB 무장을 통합하려면 상당한 개조와 이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F-16과 같은 비교적 신형 전투기라도 성능개량을 통해 항공전자 체계와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신형 정밀유도무기 운용이 불가능하다.

활공형 정밀유도키트는 기존의 정밀유도무장과 달리 별다른 개조 없이도 구형 항공기에 정밀유도무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키트이다. 유도방식으로는 기존의 JDAM, SDB와 유사하게 위성항법장치와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한 방식이 사용된다. 다만 표적 자료 입력방식은 기존 GPS 유도무기와 차이가 있다.



출처: 임상민

KGGB 활공형 정밀유도키트

기존의 정밀유도무기는 투하되기 전에 항공기의 무장 인터페이스(MIL-STD-1760)를 통해 표적자료를 입력받는 데 반해, 활공형 정밀유도키트는 조종사가 휴대하는 자료입력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입력받는다. 조종사가 폭탄 유도에 필요한 표적 위치 좌표, 선회지점 등을 무릎 위의 자료입력장치에 입력하면 무선으로 직접 활공형 정밀유도키트에 전달되어 투하 준비가 완료된다.

정밀유도키트 투하는 일반 폭탄과 동일한 투하계통을 통해 투하되며, 투하 후 키트에 내장된 날개가 전개된다. 날개는 폭탄의 기동성과 활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고도에서 투하될 경우 원거리의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다. 폭탄은 투하 후 유도키트에 입력된 표적으로 비행하게 되지만 필요 시 표적 자료의 변경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활공형 정밀유도키트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KGGB⁴⁾가 있다. KGGB 정밀유도키트는 정밀유도 무기 운용 능력이 제한된 한국 공군의 F-4E, F-5E/F 전투기에도 별다른 개조 없이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운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있다. **AF**

4) KGGB: Korean GPS Guided Bomb, 중거리 GPS 유도키트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 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공군 SNS 주요콘텐츠 안내

공피셜

공피셜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에어본

AIRBORNE*



공군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촬영 콘텐츠

하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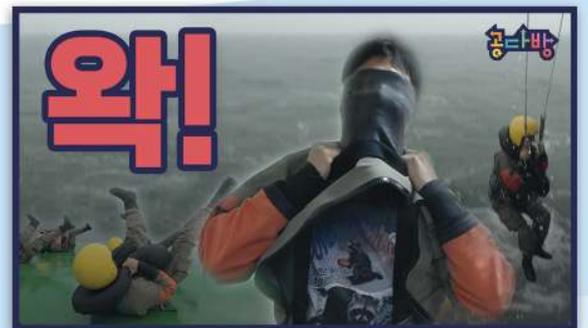
하사하자



장 병장의 임기제부사관 도전 콘텐츠

공다방

공다방



공군의 다방면을 보여드립니다

항공기 VLOG



항공기 시점에서 보는 비행단의 하루



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rokafplay



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rokairforce



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rokaf_official



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

무에서 유를

철전(鐵箭) - 목숨 걸고 활을 당기는 육량전



글쓴이 소개_『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 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해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미사일처럼 거대한 비행 발사체가 하늘을 가른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힘과 단순한 활의 형태로 그 엄청난 화살을 쏘는 것이다. 이 모습은 조선시대 가장 무거운 화살로 이름난 철전(鐵箭), 즉 쇠뿔치를 축으로 만든 화살이자 무예였다. 어찌나 무거운 화살을 쏘는지 그 다른 이름으로 ‘육량전(六兩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다.

조선시대에서 장군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무예시험 과목이 바로 철전이였다.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하여, 요즘으로 치면 대령에서 장성으로 진급할 때 철전의 점수가 그 당락을 결정하였다. 무예를 연마하는 무신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가 바로 당상관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실은 무과와 관계가 깊은 말이기도 하다. 요즘도 ‘별’은 꿈의 계급이자, 누구나 우러러 보는 최고의 예우와 책임감을 동반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평생토록 이어나가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살의 무게는 활을 쏘는 사람의 팔의 길이에 따라 약 6-8돈(錢, 1돈을 3.75g으로 계산할 경우 22.5-30g) 정도 나는 것을 사용한다. 대충 회초리 정도를 연상하면 된다. 그런데 철전은 6냥(兩, 약 375g)으로, 일반 화살에 비해 약 10배 이상 무거운 화살인 셈이다. 모양도 회초리 형태를 한참 뛰어 넘어 지팡이나 지게 작대기 정도로 굵은 모습이다. 거기에 끝에는 뾰족한 쇠뿔치가 달렸으니, 그것이 날아가는 모습은 흡사 얇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다.



일반 장전(좌)과 철전(우)

육량전이 이렇게 크고 무거우니 가끔 그 자체로 몽둥이와 같은 흥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를 보면, 서울의 귀족 자제들이 무뢰배를 동원하여 육량전을 무기삼아 지방에서 과거(科擧)를 보러 올라온 촌 사람들을 구타하여 시험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든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조선시대 입시 비리 중 하나였던 ‘격축(擊逐)’에 대한 이야기로, 그때 사람의 등뼈를 분지르는데 사용했던 무기가 육량전, 즉 철전이였다.

또한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재판기록을 살펴보면, “육량전으로 10여 차례 세계 때려 상처의 흔적이 여기저기에 남자하도록 만들었다.”나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여 육량전용 화살대로 때리며 분풀이를 하였다.”라는 식의 폭행 도구로 철전이 자주 언급될 정도였다. 흡사 쇠몽치가 달린 적당한 두께와 길이의 몽둥이가 바로 철전이였다.



철전이 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장갑

그 날아가는 모습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활도 일반적인 각궁의 크기보다 두 배 가까이 큰 육량궁이라는 특수 활을 사용하였는데, 이 활의 강함은 상상초월이다. 육량전을 멀리 쏘야 했으니, 당연히 활의 크기도 커진 것이다. 보통 활의 세기는 가득 당겼을 때 당겨지는 마지막 힘을 파운드(lb)로 표기하는데, 일반 성인 남성이 약 45-50파운드 정도를 당긴다. 이 정도의 활로 145m 떨어진 기본 규격의 과녁을 맞추려면, 곡사포처럼 포물선을 그으며 화살이 날아간다.

필자의 주변에 국가대표급 전직 역도선수가 활을 배웠는데, 그 사람은 무려 85파운드의 활을 당겼다. 이 정도의 활이면 145m 떨어진 과녁을 곡사가 아닌 직사로 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초강력 활이다. 이 활은 보통 사람이면 단 10cm도 시위를 당길 수 없는 지경이다. 거의 슈퍼맨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철전을 쏘는 육량궁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300근(斤)짜리의 강한 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00근 활이면 무려 180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활이다. 생각해 보시라, 엄지손가락 하나로 180kg을 끌어당기는 그 괴력의 모습을.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사용하는 육량궁의 세기에 따라 혜택을 주어 일반적으로 무과에서는 100근에서 120근의 활을 사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도 100근이면 60kg으로 무려 120파운드가 넘는 활이다. 필자도 20년 넘게 활을 수련한 활꾼이지만, 45파운드 정도를 당기는 것이 힘에 맞다. 현재 전국에서 활을 쏘는 그 어느 이름난 명궁들도 이 정도의 활을 쏜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을 지경이다. 이 정도 세기의 활은 약 200m 정도의 과녁에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곡사로 쏜다면 활이 500m는 족히 날아가고도 남는 힘이다.



철전을 쏘는 필자의 모습

육량궁과 관련해서 조선 후기 조선통신사와 함께 일본에 건너간 군관들이 격은 재미있는 체험담이 지금도 남아 있다. 『해사일기(海槎日記)』를 보면, “조선군관이 시험 삼아 쉬운 듯이 가볍게 한 번 당겨 보이고는 그 왜인으로 하여금 당기게 하였더니, 그 왜인은 이를 악물고 팔뚝을 뽐내어 힘을 다해 당기었으나 오히려 활시위를 벌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활을 팽개치고 달아나면서 혀를 빼 물고 낮을 붉히고 머리를 흔들고 손을 휘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군관이 육량궁을 쉽게 쏘는 모습을 보고 건장한 왜인이 자신도 충분히 당길 수 있겠다고 너스레를 떨다가 벌어진 우스꽝스런 일이었다.

이렇게 육량궁이 강한 활이다 보니, 일반 각궁처럼 제자리에서 당길 수 없었다. ‘용약사법(踊躍射法)’이라고 하는데, 제자리에서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앞으로 튕겨 나가듯 달려 나가며 활을 당겨야 육량궁 시위를 당길 수 있었다. 조선시대 육량전 쏘는 모습을 시로 남긴 것을 보면, “힘센 자는 팔짝팔짝 뛰고, 약한 자는 엎어진다.(健者雀躍弱者仆)”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결국 무과에서는 끈수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팔 힘만으로는 당기기 어려우니 발부터 어깨까지 줄을 묶어 다리와 허리 힘으로 활을 당기는 형태였다. 그것이 조근대(助筋帶)였다. 발에 줄을 묶어 등 뒤로 어깨까지 연결하고, 이 끈을 잡고 활 다리를 쭉 펴며 시위를 당기면 온 몸의 힘으로 시위를 당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철전 시험 전에는 반드시 응시자의 옷 속에 끈을 감춰 뒀는 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험의 사전 절차가 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이런 능력도 없는 응시자들은 ‘대사(代射)’라고 하여 일종의 대리 시험을 치르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만약 대리 시험이 발각될 경우, 온 가족이 국경 근처로 강제 이주 당하는 엄청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장원 급제를 위한 열망은 끝이 없었다.



신윤복의 <계변가화(溪邊佳話)> 속 철전의 모습. 철전은 다른 화살과는 다르게 비행을 유도하는 것이 없다.

또한 역지로 앞으로 팔짝 뛰어 나가며 쏘다 보니 철전이 과녁 방향과는 다른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공식적인 무과장에서도 오발 사고로 인해 시험관이나 근처를 지나는 무과 응시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그래서 특별히 철전 시험장 주변에는 특수 방패를 설치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무과에서 철전 시험은 과녁에 맞지 않아도 최소 80보를 기준으로 발사 장소부터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가 핵심인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무과에서 철전을 100보 이상의 거리로 쏘 경우 5보마다 1점씩 무한히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이기에 시험 응시자들은 다른 과목인 목전(木箭)이나 편전(片箭) 혹은 기사(騎射)에서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철전에서 점수를 충분히 얻으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화살을 멀리 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철전 쏘기 훈련이 계속 되었다. 당상관이 될 때까지 쉬 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철전 훈련으로 어깨가 망가지고, 죽음까지 이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나친 궁력(완력) 자랑은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정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전의 화살 거리에 따른 추가 점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상소를 통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을 정도였다.

무예 수련은 끝없는 반복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훈련이 항상 곁행되어야만 부상없이 오래 수련할 수 있다. 현대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다 강한 대한민국 국군으로 발전하길 기원해 본다. AF



김홍도의 작품 <활쏘기> 속 철전 당기기 모습

제36화 조신혜 중사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공군 부사관이라는 자부심

월간 『공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신혜 중사(부사후 207기)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 8월 임관해 공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민께 공군의 소식을 알리며, 공군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문화생활을 책임지는 공보정훈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1년 반 동안 길러온 머리카락 30cm를 싹둑 잘랐습니다. 심경에 변화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한 결심인데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기부한 머리카락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소아암 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암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어여쁜 아이들아! 언젠가 너희가 다른 이에게 사랑을 전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길 기도할게!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여군이 되었는데?’인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익숙하면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훌륭한 군인들처럼 어릴 적부터 장래희망이 군인이었던 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다 바쳐 무언가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고 제 성격이 군인과 잘 맞을 것 같아 부사관에 지원했었습니다.

막상 공군 부사관이 되고 나니 군인의 삶을 살며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보람, 그리고 공군 부사관으로서의 자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군 복무를 시작하는 병사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어느새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때 가장 뿌듯합니다. 업무에서 오는 성취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좋은 감정과 따뜻한 정이 제 군 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할 당시 어린이집 아이들이 부대 견학을 오곤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인솔하며 부대 곳곳을 구경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후 부대를 재방문한 아이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편지와 선물을 주던 순간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남아있다.

‘어머니 운동’에 참여하기까지

매년 1천여 명의 아이들이 아동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군인으로서 환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하면서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달라진 외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가발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으로 얻는 고통에 더해 이중으로 겪어야 하는 충격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죠. 하지만 환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100% 인모가발은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해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머리카락 기부



기부할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조 중사

를 통한 인모가발이 절실한데요, 군 생활을 하며 여러 기사를 통해 공군 선후배 여군들의 머리카락 기부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2022년 신년 계획이자 제 버킷리스트에 ‘머리카락 기부하기’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운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어머니 운동은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의 줄임말로, 어머니 운동본부는 25cm 이상의 머리카락 30가닥 이상을 기부받아 소아암 환자의 심리적 치유를 돕기 위해 맞춤형 가발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길러온 머리카락을 ‘어머니 운동본부’에 기부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부사관 후보생 시절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한창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일 소아암 환자들

이 예쁜 가발을 쓰고 미소지을 모습을 생각하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없어도 되는 머리카락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머리카락 기부는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

처음 머리카락 기부를 결심했을 때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아암 환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인모가발로 활용되는 머리카락은 파마나 염색 등 어떠한 화학 성분이 가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모발 상태가 양호해야 더 좋은 가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발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평소 머리를 감고 나서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같은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기부를 결심하고 나서는 모발에 더 좋은 제품을 찾아 바르며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헤어드라이어 등 모발에 열을 가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자연 건조했습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앞으로는 머리카락을 더욱 소중히 관리해서 건강한 모발을 또다시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 중사가 기부한 머리카락

**긍정에너지
확산은
생각보다
빠르다**

쑥스럽지만 저는 이번 머리카락 기부뿐만 아니라 다른 후원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임 하사시 절부터 지금까지 뇌성마비 어린이를 위한 후원을 10년 넘게 이어가고 있어요. 또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해서 매주 일요일에는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챙겨보고 있고 현재 유기묘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와 유기 소식을 접하면서 동물 관련 봉사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어 마음이라도 전해보자는 생각에 유기동물보호단체에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생리대값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소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올해부터 소녀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후원을 계속하게 된 계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소비와 저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꼈다면, 지금은 저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을 느낄 때 제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아마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성장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장교분과 후임 부사관이 제가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보고 새롭게 후원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는 빠르게 확산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¹⁾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포장과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했던 저희 언니를 본받아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집에서 물티슈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설거지를 할 때는 주방세제 대신 설거지용 비누를 사용합니다. 샴푸와 린스 사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종이컵 사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설거지를 자처하면서까지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실원들이 먼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나로 인해 주변이 바뀌고, 작은 활동이 모여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환경 보호 활동

받은 만큼 돌려주자

보통 어떤 후원을 결심할 때 특별한 이유로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유기동물보호단체와 생리대 지원 모두 소셜미디어 내 광고를 보고 후원을 결심했었습니다. 이렇듯 우연한 기회로 접한 소식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의해 요새 자꾸 비슷한 광고가 나오는 것 같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웃음) 제 좌우명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즉 ‘남한테 받은 만큼 돌려주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 복무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여태껏 군 복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과 성과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좋은 마음을 많이 받아 온 만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매년 초에는 새해 목표를 세우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 각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제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일 10번 이상 하기’입니다. 계속 의식하고 행동하다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세운 목표인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해가 마무리될 때 즈음 목표를 모두 채우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있지 않을까요?(웃음)



조 중사의 새해 목표

기부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온 기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름아닌 이번 머리카락 기부인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기부를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아깝지 않냐고 걱정해줬지만, 막상 기부하고 나니 많이들 칭찬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이번 한 번 참여한 만큼 저는 제 머리카락을 더 이상 안 받아주는 그 날까지 기부를 이어가고 싶어요. 머리카락이 아까워서라기보다 기부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부에 대해 알고 나니까 그동안 생각 없이 잘라낸 머리카락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머리카락 기부에 대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부에는 특별한 동기도, 결심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온기를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액수나 규모보다는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모습을 보고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일에 동참한다면 뜻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좀 개선된다면 동료들과 함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봉사도 가고 더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사회의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한 봄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우리 함께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AF





월간 『공군』 독자 참여코너 공모 안내

월간 『공군』 독자 참여코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장병 및 군무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h2>1 공군인의 편지 </h2> <p>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p>	<h2>2 책 읽는 공군 </h2> <p>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추천 / 소개 / 서평</p>	<h2>3 마음의 소리 </h2> <p>월간 『공군』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p>
<h3>응모방법</h3> <p>인트라넷 E-mail 전송 kyhmm6262@af.mil (대위 김용휘)</p> <p>(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편지) 명시할 것)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p>	<h3>응모방법</h3> <p>인트라넷 E-mail 전송 kyhmm6262@af.mil (대위 김용휘)</p> <p>(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서평) 명시할 것) (예 : [서평]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p>	<h3>응모방법</h3> <p>인터넷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에서 업로드 (www.afzine.co.kr)</p> <p>(인터넷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공군' 검색 후 '독자 의견' 코너에 게시)</p>
<h3>양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바탕체 <input type="checkbox"/> 10pt <input type="checkbox"/> 줄간격 180% <input type="checkbox"/> 공백포함 1,250자 이내 <p>(수신인 성함, 주소, 연락처 기재)</p>	<h3>양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바탕체 <input type="checkbox"/> 10pt <input type="checkbox"/> 줄간격 180% <input type="checkbox"/> 공백포함 1,400자 이내 	<h3>양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250자 내외 <input type="checkbox"/>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공모기간 매월 **15일** 까지

입선편택 <공군인의 편지>, <책 읽는 공군> 지면 게시작 / 1등 - **포상금 5만 원** (개인 계좌 입금) 2등 - **기념품**
 * <공군인의 편지> 당선 시 수신인 주소로 공군지와 기념품 특별 배송
 <마음의 소리> 게시작 / **기념품**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 - 개별발송)



공군사관학교 제70기 졸업 및 임관식

공군사관학교 제70기 생도들은 지난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정예 우주 공군 장교로 임관했다.







강원지역 산불 진화 현장으로 투입되는 HH-32

공군은 강원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HH-47, HH-32 헬기 4대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했다.





미국 우주사령관 방문

박인호 참모총장은 3월 19일(토), 공군본부를 방문한 제임스 디킨슨(James H. Dickinson) 미국 우주사령관을 접견하여 한미 양국 간 우주 영역 인식 능력발전과 우주 정보 공유 수준 격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대한민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박 총장은 제임스 디킨슨 미국 우주사령관과 함께 공군본부 우주센터를 방문하여 군사 우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연락장교 파견 등 실질적인 우주 협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2월 월간참모회의 및 시상식



박인호 참모총장은 3월 4일(금), 공군본부에서 2월 월간참모회의를 주관하여 주요 현안업무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총장은 2021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된 제11전투비행단 방주원 소령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등 탁월한 역량으로 공군의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학군장교(ROTC) 임관식



박인호 참모총장은 3월 3일(목),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진행된 공군과 육·해군, 해병대 합동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참석해 지난 2년간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고 명예롭게 임관한 신임 장교들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무운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임관식에서 주재우 소위(대통령상), 김경중 소위(국무총리상), 제원진 소위(국방부장관상), 윤종현 소위(공군참모총장상) 등 총 4명의 신임 장교가 우등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 제51기 졸업 및 임관식

교육사령부는 2월 28일(월), 연병장에서 항공과학고등학교 제51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지난 3년간 일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기술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신임 부사관 143명은 각 부대에서 고도의 항공우주기술을 운용하며 조국과 공군을 위해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3훈련비행단

야간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2월 24일(목), 야간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대형 폭파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활주로 피해복구 절차 숙달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제16전투비행단

TA-50 루트 페어링 작업

제16전투비행단은 2월 28일(월), 건전한 항공기 기골 유지와 비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TA-50 항공기 주익 루트 페어링(연결 덮개) 지지대 교체작업을 실시했다. 루트 페어링은 항공기 날개와 동체가 만나는 부분인 루트를 덮고 있는 커버로, 항공기가 받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제18전투비행단

강원지역 산불 진화 작전

제18전투비행단은 3월 5일(토), 강원지역 대규모 산불 발생에 따라 민관군 헬기에 유류를 지원하고 장병 약 100여 명을 급파하는 등 가용 자원과 병력을 대거 투입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19전투비행단

대테러 대응 훈련

제19전투비행단은 3월 8일(화), 부대 내 기지방어 종합훈련장에서 대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미상의 무인 항공기 식별 상황을 가정해 대테러 초동작전팀 출동태세 점검 및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등 실전적으로 실시됐다.



제38전투비행전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제38전투비행전대는 3월 8일(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양성평등 제도 이해와 의식 함양을 위한 기념 캠페인을 전개했다. 부대 홈페이지를 통한 낱말 퍼즐 이벤트를 진행해 부대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 부대(서)별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달, 한 권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이제 완전한 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아직 꽤 쌀쌀하지만 한낮의 햇살은 따사롭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두 번째 시작’이란 생각을 합니다. 매해 1월 1일,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봄이 되어 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어 후회가 밀려오지요. 이럴 때 봄을 맞으면 다시금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나무마다 새순이 돋는 것처럼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여러분도 2022년을 시작하고 아직 미진한 것이 있다면 봄맞이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 책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결심(운동, 독서, 공부, 다이어트 등) 중에 글쓰기 결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대가 열리면서 글 쓸 일이 늘어났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그때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고 남기죠. 또한, 코로나 시대가 2년을 넘기면서 비대면 보고가 많아졌는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쓸 일도 늘었습니다. 이때, 생각을 조리 있게 잘 쓸수록 업무의 성과가 좋아지죠. 이런 흐름을 반영해 저희 책방은 (네, 저는 서울 선릉 근처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작가가 될 수는 없지만 글은 잘 쓰고 싶잖아요?’라는 주제로 글쓰기 관련 책을 큐레이션 해놓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선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글을 써야 하는지,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힘주어 말해요. 그럼에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 당장 글이 쓰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글쓰기를 등한히 한 것도 후회되고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글쓰기 책들은 별 소용이 없다.” 글쓰기란 근육을 기르는 일과 흡사해서 본인이 열심히, 계속해서 쓰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저는 저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책의 저자, 정지우는 글 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로 통합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페이스북에 거의 매일 한 편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글을 매일 쓴다는 것도 놀랍지만 글의 완성도도 높아서 많은 작가가 감탄하며 응원했죠. 게다가 이 분은 전업 작가도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일을 해왔고 올해부터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쁜 생활 중에도 변함없이 매일같이 글을 씁니다. 자신의 책에 쓴 그대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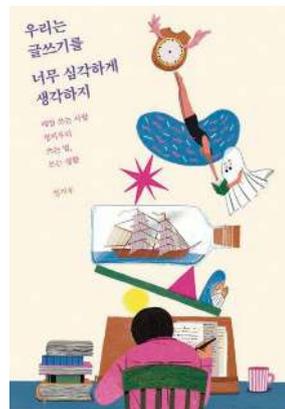
요즘은 ‘브런치¹⁾ 작가’나 독립 출판 작가 등 작가가 흔해졌고 작가가 되는 길도 많아졌습니다. 꼭 예전처럼 신문사나 잡지사의 문학상을 받고 등단해야 작가가 되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작가란 어떤 사람일까요? 책을 낸 저자가 작가일까요? 이 책의 저자 정지우 작가도 ‘누가 작가인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글쓰기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 작가는, 글이 출판되고 기고되는 측면보다, 즉 책을 낸 저자인가보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글을 쓰는 데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같이 글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자는 전업 작가가 되기보다 삶의 한 부분, 존재의 한 측면으로서 ‘작가’를 지니기를 권유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 계속해서 글을 쓰라는 뜻입니다. 부분적이더라도 작가로 존재하는 데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선 책에 아주 설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정지우 작가의 ‘작가 규정’이 큰 힘이 될 듯합니다. 책을 낸 사람인가보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면 나의

일부분은 작가인 셈일뿐더러 전업 작가는 되기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대단히 고단한 길이니깐요.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SNS를 열심히 하고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를 꾸리는 이 모든 행위가 실은 외롭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는 태생부터 사회적 존재이므로 혼자 살아가기 어렵고 어떡하든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야말로 정말 ‘혼자’라고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글쓰기란 독자를 향해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행위입니다. 글을 통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고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말해요. 글 쓰는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병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보다 더한 위로가 또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글을 왜 써야 하고, 글을 쓰면 무엇이 좋은지를 설득해 글을 쓰고 싶게 만들어요. 미처 알지 못했던 욕망을 건드리고 자극하죠. 그러니 다짐을 새로이 하는 이 봄이야말로 이 책을 읽기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필을 빕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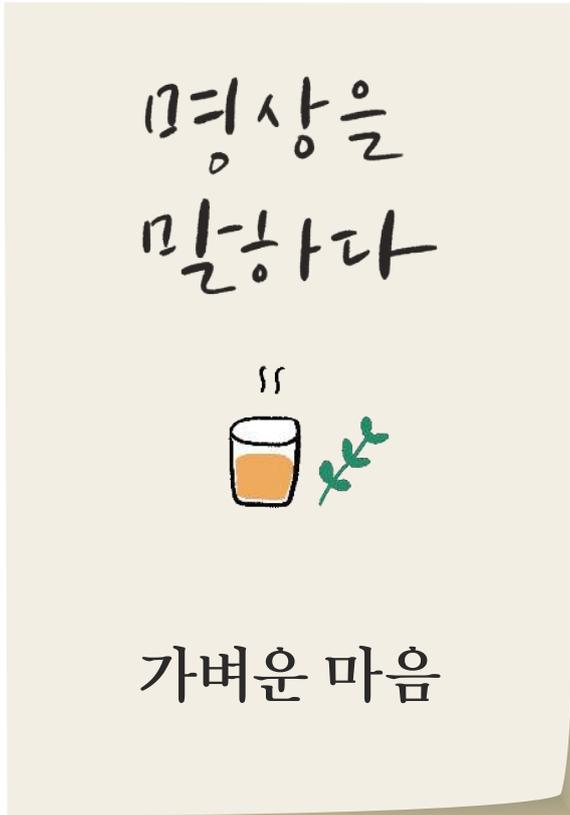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정지우 지음
문예출판사 펴냄

1) ㈜카카이가 운영하는 글쓰기 플랫폼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과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마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가볍거나 무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는 분명 무게가 없지만, 마음이 가볍거나 무겁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볍다는 건 행복감을, 마음이 무겁다는 건 불행감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마음을 마치 무게가 있는 듯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무게가 있는 듯이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할 때는 마음 안에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듯 느끼고, 마음이 가볍다고 할 때는 내가 바라는 것만 있는 듯이 느낍니다.

명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명애’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쟁기나 수레에 묶인 황소가 짊어진 그 명애에 말입니다. 그런 명애를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마음이나 명애를 벗은 가벼운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명상함으로써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건 명애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명애’에는 5가지가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애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등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하루 종일 찾아다닙니다. 더 멋진 경치, 더 듣기 좋은 소리, 더 향기로운 냄새, 더 맛있는 음식, 더 부드러운 감촉을 따라 다니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주변의 온갖 광고들을 보십시오. 더 나은 감각적 느낌과 욕망을 일으켜서 물건을 사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지요. 세상을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더 좋은 감각적 느낌을 더 많이 가지려는 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각적 욕망은 한 번 채워지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큰 불만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은 마음의 명애입니다.

두 번째 명애는 ‘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나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 해방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매이고 속박되는 느낌을 받지요. 우리 주변에 별것도 아닌 일에 별걱별걱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벼울까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전쟁’이 없듯이 ‘좋은 화’는 없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러니 화는 뒤집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마음의 멍에이듯 화도 마음의 멍에인 겁니다.

세 번째 멍에는 ‘게으름과 몽롱함’입니다. 게으름과 몽롱함이 마치 훌륭한 행동인 것처럼 포장해서 힐링 수단으로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게으름과 몽롱함에 빠져 있을 때 그 마음이 가볍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름과 몽롱함은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아무런 발전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이자 스스로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멍에는 ‘들뜸과 후회’입니다. ‘들뜸과 후회’는 ‘게으름과 몽롱함’의 반대라고 할 수 있지요. ‘게으름과 몽롱함’처럼 ‘들뜸과 후회’도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들뜨거나 후회하는 마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이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멍에는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호기심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마땅히 신뢰해야 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되려면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병든 사회이지요. 의심병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가 모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멍에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가벼운 마음은 바닥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맑은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 다섯 가지 멍에가 있다면 바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겠지요. 비유하자면,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색색의 물감을 푼 물, 화에 사로잡힌 마음은 끓는 물, 게으름과 몽롱함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끼가 낀 물, 들뜸과 후회에 사로잡힌 마음은 바람에 일렁이는 물, 의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건 흐려진 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가라앉게 하여 바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섯 가지 멍에가 내 마음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선불리 바꾸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멍에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만히 지켜 보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가는 명상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다섯 가지 멍에가 원래부터 아무런 실체가 없고 아지랑이처럼 그냥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단지 현상에 불과할 뿐임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어느 날 지구에 혜성이 충돌한다면?

어느 날 인류를 전부 멸망시킬 만한 크기의 혜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허무맹랑한 생각 같지만, 과학적으로 꽤나 근거 있는 고민거리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약 750만km 이내로 접근하고, 지름이 140m 이상인 행성에 대해 지구 충돌 시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소행성이라고 본다. 이를 ‘잠재적 위협 소행성(PHA)’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관측되고 있는 PHA만 2,000여 개다. 이 중 대부분은 지구를 비껴가겠으나, 충돌 위험성이 제로는 아닌 것이다.

지난해 12월, 영화관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개봉한 영화 『돈 룩 업』은 실제로 지구에 혜성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천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케이트 디비아스키(제니퍼 로렌스)는 하늘을 관측하다가 새로운 혜성을 발견한다. 그의 지도 교수인 랜달 민디(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혜성에 ‘디비아스키 혜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축하 건배를 한다. 두 사람은 연구실 동료들 앞에서 디비아스키 혜성의 예상 궤도를 계산하던 중 말을 잊지 못한다. 193일 후 예상되는 혜성과 지구 사이 좌표 차이는 (0,0). 즉, 6개월 후에 이 혜성은 지구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이를 다급하게 알리고 사태 해결에 나선다.

『돈 룩 업』 이전에도 혜성 충돌 상황을 가정한 SF 영화는 있었다. 1998년 개봉해 세계적으로 대 흥행한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가 혜성 충돌 영화의 대표작이다. 이 두 영화에서는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 혜성의 궤도를 계산해내고, 치열한 논쟁 끝에 어렵지만 시도해볼 법한 해결책을 찾아내어 일부 영웅들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혜성을 폭파해 전 인류를 살려낸다. 『돈 룩 업』의 서사는 기존의 혜성 영화들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혜성을 물리치기에도 가까운 시간에,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가열히 삽질하면서 사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만 한다. 이 같은 블랙 코미디가 무려 2시간 20분 동안 실 틈 없이 펼쳐진다.

혜성을 발견한 두 명은 우여곡절 끝에 백악관에 들어가 대통령을 만난다. 유명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집무실에 빼곡하게 전시해놓은 어딘가 괴짜인 대통령은 두 명의

과학자를 마치 잡상인이나 민원인처럼 대한다. 대통령의 첫 질문은 “그냥 본론부터 하죠, 돈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가 필요한데요?”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 혜성 충돌 위험은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짜뉴스 정도로나 취급하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혜성 문제에 다시 관심을 보인다.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혜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군함 위에서 열린 성명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영웅 서사 만들기’다. 과학자들은 현재 기술력이면 무인 우주선을 쏘거나 원격조정 미사일로 혜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백악관은 한 명의 파일럿을 미사일과 함께 우주선에 태워 보내는 ‘자살 임무’만이 혜성을 폭파할 수 있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자유 훈장 서훈자이자 애국자인 백인 노인이 탑승자로 지정된다.

『돈 룩 업』에서는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혜성 충돌을 진지하게 대하는 학자들은 한 줌이다. 미디어는 전혀 자정작용을 하지 못한다. 주인공 두 명은 위기를 알리기 위해 시청률이 높은 아침방송에 출연한다. 하지만 신문, 방송 어느 곳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실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저 시청률, 트래픽, 화제성만 따진다. 디비아스키는 혜성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파괴될 거라는 말을 아침방송 진행자들의 면전에 대놓고 하면서 “저희 말이 어렵나요?”라고 묻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진행자들은 누가 더 재미있는 ‘개드립’을 날려서 웃음을 터뜨리고 발랄한 분위기를 유지할지만 생각한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디비아스키에게 진행자 한 명은 “여기선 나쁜 소식도 가볍게 다루는 편이다”라며 웃는 얼굴로 양해를 구한다.

『돈 룩 업』은 미국식 블랙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다.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영화는 코미디가 아니라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리얼하게 현실을 그리는 것을 알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사실임에도 놀랍도록 무심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돈 룩 업』을 만든 애덤 맥케이 감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는 급속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담은 책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읽은 후 의문을 품었다. 사람들이 도끼를 든 살인마를 만나거나 집에 불이 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몇십 년 후 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혜성이 충돌하기 직전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한다.

감독의 말처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진실을 일상에서 간과하며 지낸다. 영화 속 디비아스키의 말처럼 몇몇 과학적 사실은 “재밌으면 안 되고, 무섭고 불편해야 할 소식”이다. 마치 내일이면 삶이 끝날 것처럼 절망에 빠져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불편한 진실들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학자들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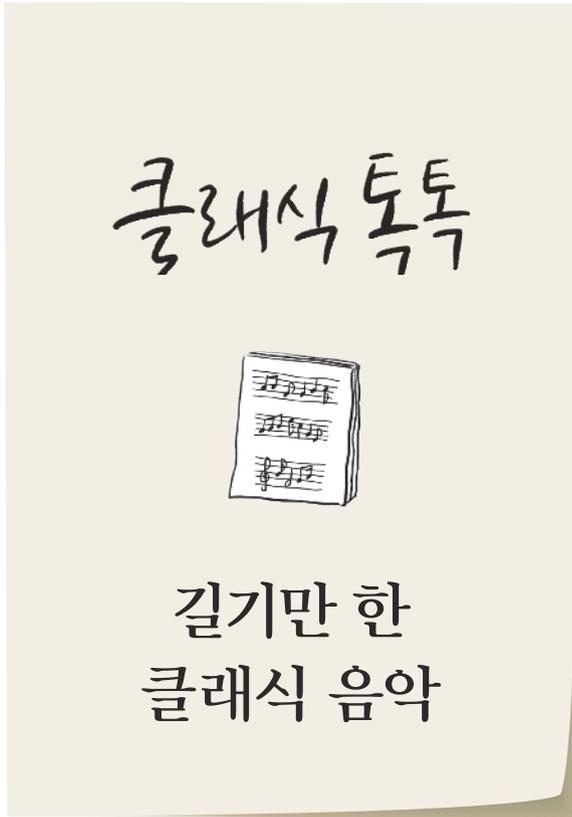


영화 『돈 룩 업』



글쓴이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 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영화, 출판 등 여러 분야를 맡아 취재했습니다. 흥행 기록 예상엔 매번 실패하지만, 영화를 주제로 글을 쓰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클래식을 접할 때 겪는 고충이 바로 ‘길이다’. 어렵고 지루한데 길기까지 하다. 매체에서 클래식 연주회장은 눈치 없이 졸고 있는 민폐 캐릭터나 온갖 끈대스러움을 가득 품은 기득권 수구세력의 집합소쯤으로 그려진다. 록 음악이나 재즈, 랩 정도는 즐겨야 고리타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은 억지로 2시간 동안 연주회장에 틀어박혀야 하는 클래식 연주회 티켓을 찢고, 록 페스티벌로 달려가 스탠딩 자리에서 뛰며 음악을 온몸으로 즐기는 안티히어로 정도로 묘사된다. 그래야 쿨(Cool)하니까.

이렇듯 흔히 여겨지는 모습들과 달리, 짧고 간결한 클래식은 넘쳐난다. 고음이 박력인 3분가량의 테너 오페라 아리아¹⁾도 있고, 싸우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만으로 곡을 꾸린 유명 오페라 작곡가²⁾도 있다. 그리고 CF나 영화의 삽입곡으로 유명한 클래식 곡들은 대개 4분 안팎인 짧은 곡들이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진 짤막한 곡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진다.

어떤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면 몇 가지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반복’이다. 주제가 되는 두 마디나 네 마디의 선율을 반복해서 들려주면 사람들은 나중에 그 곡을 떠올릴 수 있어 곡을 각인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주제선율 앞뒤로 도입부나 전개부, 혹은 그다음 주제선율이 나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보통 ‘후렴구’로 대표되는 클라이맥스 선율의 반복을 가장 쉽게 기억한다. 당시의 유행곡들은 그렇게 반복구성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지금도 그 방법이 제일 잘 먹힌다.

그러면서 주제를 이리저리 비틀어보고, 화성을 바꿔보기도 한다.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전 인기곡을 리메이크하거나 편곡만 살짝 바꾸면, 같은 곡이라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재현 가수가 원곡 가수보다 기량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주제선율은 같아도 반주부의 화성이나 주제선율의 리듬을 조금 비틀어 변화를 꾀한 것이 곡의 전체분위기를 바꿔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선율의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지만, 또 너무 심하게 바꾸면

1)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2) 롯시니, ‘고양이 이중창’

듣는 사람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반복해서 만드는 주제 선율을 말고도 제2주제를 첨가하거나 주제가 반복될 때마다 선율의 조성, 빠르기, 리듬을 바꾸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그리고 그 완결판으로 ‘소나타 형식’이란 게 등장했다. 이야기로 말하자면 기승전결 구조론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제 사람들은 안정된 소나타 플랫폼 위에서 음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주제선율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바꾸니 자연스럽게 곡이 길어졌다. 그렇게 길이를 늘이면서 더 과감하고 새로운 형식을 찾아 내기도 하고, 고급스럽고 복잡한 화성도 가능해졌다. 단편소설에서 호흡이 길고 정교해지는 장편 소설로 옮겨가는 것처럼, 음악도 현악 4중주 실내악에서 옮겨가, 이제 모든 악기가 다 나와 풍성한 음색을 뽐내는 교향곡들이 나타났다.

19세기에 가선 명확한 주제를 가진 작품을 대편성으로 작곡하는 경향이 길어졌다. 사실 이 당시 예술 분야가 그랬는데 모든 것을 크고 확장하는 구조로 만들기 시작했다. 유럽의 대도시들은 건물과 도로를 키우고, 수천 명을 수용하는 연주회장을 지어 그에 어울리는 웅장한 작품들을 써내기 시작했다. 예술이 발달한 고위도 지방의 유럽은 겨울이 춥고 긴 나라들이다. 러시아 문학이 특히 유명한데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죄와 벌』은 800페이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1, 2, 3권을 통틀어 무려 1,700페이지에 달한다. TV가 없던 시절, 긴 겨울 야외활동 대신 저녁 식사 후 난롯가에 앉아 드라마 보듯 매일 조금씩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에 딱 알맞았다. 사람들은 주말에 교회에 가는 대신 극장과 연주회장을 찾아 오페라나 음악회를 즐겼다. 귀족 중심이었

던 과거와 달리 일반인도 보편적으로 예술작품을 소비하는 패턴으로 바뀐 것이다, 음악은 화성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자유롭게 조를 바꿔가며 주제선율을 끝없이 확장해갔다. 바그너의 오페라 중엔 나흘 동안 총 15시간을 공연하는 대작³⁾도 나타났다. 그 당시에도 ‘고작 한 두 군데의 멋진 구간을 듣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문당하는 오페라’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고, 클래식을 전공한 필자도 20대까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어떤 영화에 그 오페라 일부가 삽입곡으로 쓰였는데, 그 부분이 좋아서 찾아 듣다 보니 나중엔 오페라 전체를 좋아하게 되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차츰차츰 스며드는 중독성이 일품이다.

클래식 음악이 길게 느껴지는 건 소위 ‘전곡’을 의무감에 완주하겠다는 각오로 접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음악을 즐기지 못하면 매한가지다. 혹여 익숙해지더라도 굳이 의무감에 전곡의 작품번호를 외워가며 시험공부 하듯 듣다가 졸 필요는 더더욱 없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골라 듣자. 어차피 좋은 것만 골라 듣기에도 곡들은 넘쳐난다. 그렇게 스며들 듯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전곡을 감상하는 루틴을 밟는다. 그러다 주위에 추천곡을 권유하기 시작하면 클래식 중독의 초기 증상이다. 그렇게 마니아가 되어간다. 그저 즐기자. AF

3)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글쓴이

목원대 교수, 오페라 가수

TRENI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고객이 주인 되는 디지털 브랜드 공간

고객이 브랜드 크리에이터

SNS(Social Network Service), 디지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같은 소통 수단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상호작용이다. 신문기사를 읽거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와는 달리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는 적극적인 반응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능동적이다. 또한,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는 매우 쉽게 이뤄진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콘텐츠에 ‘좋아요’나 ‘공유’를 클릭하면서 콘텐츠에 대해 반응하며, 나아가 상태 메시지나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나의 의견과 느낌을 전달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디지털 매체의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기업이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인터넷 등장 초기에는 이메일을 통한 상호작용이 주를 이뤘고, SNS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브랜드가 올린 콘텐츠에 고객들이 누르는 ‘좋아요’ 같은 수동

적 반응에서 차츰 브랜드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퍼 날라주는 ‘공유’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성공의 지표가 되었다. 좋아요나 공유는 디지털 매체의 상호작용성 일부를 활용하는 소통의 방법이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제한적인 상호작용 수준을 넘어서 브랜드와 고객들의 상호작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를 다양화하고 있다. 기업 내부의 특징인이나 부서에서 관리하던 브랜드 SNS나 쇼핑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공간에 고객이 스스로 창작한 사진이나 비디오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더욱 활발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패션상거래기업이며 플랫폼인 <무신사(MUSINSA)>는 올해 2월부터 SNS형 커뮤니티 서비스 ‘스냅(SNAP)’을 대폭 개선해서 오픈했다. 소수의 <무신사> 크루에 한정되었던 스냅 업로드 권한을 모든 고객에게 열어주었다. <무신사>의 역사는 원래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프리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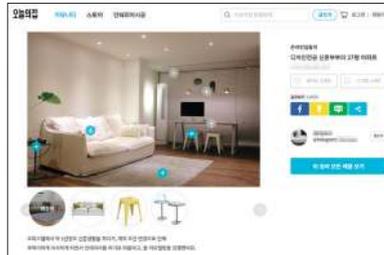
커뮤니티의 고객 참여형 플랫폼에서 시작했다. 새로 오픈한 ‘스냅(SNAP)’은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성장한 <무신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면서도 SNS형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시도이다. 기존의 <무신사> 스냅은 패션 브랜드들이 직접 패션 아이템들을 매치하거나 코디한 사진을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일방향 형태의 소통이었다면, 새로운 스냅에서는 회원이면 누구나 패션 관련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을 크리에이터화하는 적극적 쌍방향 소통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출처: 무신사(MUSINSA)

<무신사>가 패션플랫폼으로서 고객을 주인으로 만들었다면, 인테리어 애플리케이션 <오늘의집>은 고객을 집주인으로 만든 인테리어 디지털 플랫폼이다. <오늘의집>은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싶은 인테리어가 친숙하지 않던 20·30세대들에게 소소한 인테리어 사진을 자랑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구경을 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면서 <오늘의집>은 이사를 앞둔 사람들 누구나 내려받는 앱이 되었다. 이용자가 2,000만을 넘어선 지금도 <오늘의집>은 앱의 핵심 콘셉트인 고객이 올린 인테리어 사진을 가장 먼저 노출하면서 고객 참여형 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오늘의집

디지털 브랜드 공간은 온라인 놀이터

<무신사>의 스냅이나 <오늘의집>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브랜드가 고객에게 참여의 기회를 새롭게 확대하는 것은 디지털 소비자의 특징인 ‘ABCDE’를 실현할 수 있는 온라인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소비자들은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어느 장소(Anyplace)에서나 브랜드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패션에 진심이고 패션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패션피플들에게 지금 나의 패션을 보여주는 창구가 되며, 오늘 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집들이 공간이 된다. 특히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게는 단순히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방식으로 재창조(Brand

co-creation)한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나아가 <오늘의집>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들은 같은 공간의 전후 비교 사진이다. 같은 공간을 재창조한 결과물들을 보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고객들은 브랜드와의 일방적 소통보다는 다른 고객들과 함께 쌍방향 소통(Communication)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또한, 고객들은 같은 옷이나 인테리어 소품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하는 방법들을 발견(Discovery)할 기회를 갖게 된다. <오늘의집>과 <무신사> 스냅에서의 브랜드와 고객, 고객과 고객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브랜드 자체가 주는 경험을 넘어 브랜드 사용자들끼리의 경험 공유로 확대됨으로써 디지털 경험(Experience)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준다.

고객이 브랜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시도들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출발한다. 이제 디지털 공간은 브랜드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다. 고객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재창조한 브랜드 경험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온라인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고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디지털 공간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AF**



글쓴이

세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코래드(Korad, Ogilvy & Mather)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으며,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광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카피라이팅, 광고심리, 디지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민간·공공영역에서 메시지 소통전략 수립을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가면이 아니라, 진짜 얼굴입니다



대만의 여자 골프선수 청야니. 그녀는 2008년 20살의 나이에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불과 3년 만에 LPGA 통산 15승과 메이저 대회 5승, 그리고 109주 연속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짓말처럼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우승은커녕 컷 탈락하기 일쑤였고, 세계랭킹은 919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청야니는 “공도 마음도 컨트롤 되지 않는다”고 한탄했고, 최근에는 “그저 골프밖에 모르던 옛날 청야니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야니처럼 실력있고 탁월한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감을 잃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면 증후군(Impostor Syndrome)’ 때문입니다.

가면 증후군이란 자신의 성공 원인을 노력이 아닌 운으로 여기고, 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커다란 성취를 이뤘음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고 여기고, 성공 역시 한순간에 꺼질지 모르는 거품이기에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면 증후군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주위의 큰 기대에 맞춰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가면 증후군에 빠지면, 주위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수를 인정하기 힘들며, 자기방어에 급급하죠. 김연아, 아인슈타인, 톰 행크스 등 한 분야에서 최고였던 인사들 역시 가면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가면 증후군의 원인으로 미국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확신과 역량의 대립을 지적합니다. 가면 증후군은 역량에 비해 확신이 적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기 역량을 믿지 못해 과도한 근면성과 완벽성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가면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역량과 확신의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신에게 주지시키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과 겸손함이 함께 갈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주변의 평가도, 업무로 인한 결과도 걱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우쭐떨 필요도,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됩니다. 내 모습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동료들에게 고민을 나누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애초에 가면이 없었습니다. AF



공군인의 편지

글 | 일병 이희찬(제7항공통신전대 기지대대)

사랑하는 할머니께

제 스물한 번째 생일날, 할머니께 편지를 띄웁니다.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할머니는 오늘을 기억하실 거예요. 매년 제 생일마다 아침으로 잡곡밥이 아닌 흰쌀밥을 해주셨으니까요. 처음 먹는 쌀밥도 아닌데 유독 그날만큼은 백미를 씹는 맛이 달았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할머니의 흰쌀밥을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논밭과 철조망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마다 익숙한 것들에서 멀리 떠나왔음을 실감합니다. 군인이 된 지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리고 눈을 뜨면 보이는 잿빛 천장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공군인으로서의 삶이 마냥 편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야간 근무를 설 때마다 다음날은 녹초가 되고, 늘 손에 붙어있던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은 분명 불편합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선임, 간부님과 근무하고 동기들의 실없는 농담에 웃음 짓는 생활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21개월이란 시간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부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핸드폰을 받았던 날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핸드폰을 권 순간, 저를 응원하는 수십 건의 문자와 메시지가 알림창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중에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문자도 있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동생, 유태이, 선용이, 의영이, 기원이, 순재... 참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물한 살이 된 만큼,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군대에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공군의 별명이 '공부하는 군대'입니다. 오래전에 그만두었던 불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외교관이 되는 제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듯, 외교관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제 미래를 꿈꿉니다.

처음 왔을 때 설원이던 이곳도 눈이 녹고 햇볕이 따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와 봉오리를 맺는 수선화처럼, 우리 모두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머니! 분명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희망,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저를 마지막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할머니의 흰쌀밥을 먹으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책임은 공군

글 | 일병 노권수(제11전투비행단 수송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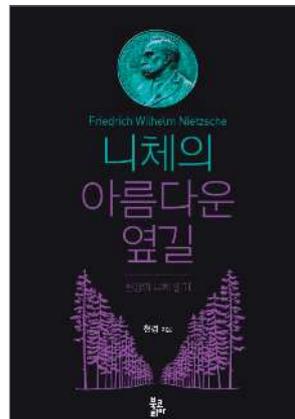
긍정과 사랑으로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것은 철학이라는 분야에 있어 시초가 되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 심지어는 과학과 종교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 각각의 답을 내놓습니다. 종교들이 내놓는 답들과 유명한 인물들의 답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우리의 삶을 도덕적이고 선하게 이끌도록 하는 대답입니다. 그에 반해, 니체는 어떤가요? 우린 ‘신은 죽었다’란 짧은 문장 외에는 보통 니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 먹고 니체의 바다에 빠지면 참 신비로울 겁니다.

니체는 일반적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들에 반기를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에 대한 반기일 것입니다. 사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보다 ‘신은 죽어야 한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신이 죽어야 할까요? 이것은 니체가 사랑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들은 지금의 종교들이 말하는 신과 꽤 다릅니다. 제우스는 마구잡이로 바람을 피웁니다. 그의 아내 헤라는 그것에 복수하기 위해 천벌을 내리고, 이 분노는 종종 무고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신들 아래의 인간이어서일까요, 그리스인들은 신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신 탓을 합니다. “제우스가 또 이상한 짓을 해서 내가 넘어졌군!” 니체에게 있어서 그들은 삶을 긍정하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세 암흑기부터의 신은 신성불가침의 영역, 인간은 태생부터 죄인이 되죠. 니체에게 있어 삶을 긍정하기 위해선 신성불가침의 신이 죽어야 했습니다.

삶을 긍정하는 것은 니체의 사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는 언제나 삶을 ‘놀이’로 즐기길 당부합니다. 놀이란 무엇일까요? 니체는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호기심과 겁 없는 용기를 사랑합니다. 우린 오늘날 기계처럼 짜인 대로 생활하기 일쑤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타고 일터로 가고, 뇌가 일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삶. 그것에서 벗어나 매 순간순간을 긍정하며, 때론 위험해 보이는 길도 감수하며 가는 것. 니체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현생과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죽고 난 후 천국을 이야기하는 종교들과 이데아를 말하는 플라톤을 니체가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살아선 안 됩니다. 우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중요한 건 오직 지금입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미래에 기대를 두지 않고, 지금의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긍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니체는 죽고 나면 똑같은 인생을 반복해서 살 것이라 말합니다. 영원회귀.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삶에서 긍정할 것들을 나서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든 깔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삶을 놀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진정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래야 나쁜만 아니라 오고 가는 수많은 이와 일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AF**



「니체의 아름다운 옆길」
천경 지음
북코리아 퍼냄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구구소한도

얼마 전 시대의 지성인이라 불리던 이어령 선생님이 별세하셨다. 오랫동안 한국의 지성으로서 문학평론가, 언론인, 장관, 교수 등을 역임한 그는 수많은 저술을 통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크나큰 감명을 안겨줬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은 짧은 글 속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80초 생각 나누기 시리즈였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글을 읽고도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묘했다. 글을 곱씹을수록 일상을 살아갈 큰 힘이 솟았다.

그 중 ‘구구소한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구구소한도란 옛날 선비들이 그린 여든한 개의 매화 꽃송이 그림이다. 추운 겨울, 선비들은 구구소한도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특이한 점은 꽃송이 테두리만 그리고 정작 채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기다리는 염원 때문이다. 흐린 날은 매화 위쪽을 칠하고, 맑은 날은 아래쪽을, 바람 부는 날에는 왼쪽을, 비가 오는 날에는 오른쪽을, 눈이 오는 날에는 한가운데를 칠했다. 그렇게 하루에 한 송이씩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름다운 그림도 완성되고, 창밖에도 매화가 활짝 피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화는 봄이 온 후에 피는 꽃이 아니라,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다. 매화는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로 불릴 정도로 선비들에게 사랑받았다. 조선의 문장가 신흠은 “매화는 한평생 चु슴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매화는 아무리 추운 겨울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기개와 정신을 뜻한다. 선비들이 구구소한도에 매화를 그린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마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선비들의 좋은 풍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계절과 상관없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스케치만 되어 있는 매화 꽃잎에 색감을 입힌다. 억울한 마음, 아쉬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꼭꼭 담은 붓을 들고 꽃잎을 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차갑고 썩던 감정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아픈 시련들이 미래에 더욱 빛나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나하나 칠하다 보면, 완성된 그림과 함께 성숙해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저귀는 새소리, 활짝 핀 꽃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우리에게 봄의 시작도 알려줄 것이다.

4월. 어느덧 겨울이 끝나고 완전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봄을 맞이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차디차게 얼어붙은 마음에 구구소한도를 그려보자. 매화 한 송이씩 그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도 어느 순간 봄 내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AF



마음의 소리

김성우

cosmic**@naver.com

공군의 다양한 군사 훈련도 유익하지만, 제1전투비행단 설맞이 병사 격려행사가 또 하나의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쳐있는 병사들에게 건강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는 힐링의 시간으로, 사기도 충전하고 단합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공군의 배려로 느껴져 좋았습니다. (AF. 가족들과 떨어져 보내게 되는 명절은 어쩌면 쓸쓸해 보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즐거움과 추억을 쌓는다면 사기도 충전되고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공군은 앞으로도 병사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익

wikja**@naver.com

군견 '레다'를 친구이자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상을 함께한 동료 김기태 예비역의 이야기가 감동적 이네요. 군견은 단지 말 못하는 동물이 아니라 공군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네 발의 전우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나이가 들어서 는 국민과 함께 뛰놀며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는 군견 '레다'를 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AF. 군견은 일평생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군견의 희생을 존중하고 은퇴군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군은 전군 최초로 은퇴군견 민간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늘름하지만 때로는 귀여운 공군 군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명화

kmh31**@naver.com

지난 수년간 공군 옆에서 기쁨과 감동을 함께해 온 애독자입니다. 3월 호에서 제3훈련비행단 36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소식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 3훈비에서 교육받도록 해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예쁜 딸 건강하고 씩씩한 3훈비 총각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공군과 함께라면 자식 걱정 없어 좋습니다. (AF. 월간 『공군』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을 꾸준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뛰어난 학생조종사가 입대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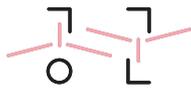
구독문의 QR코드



마음의 소리 QR 코드

마음의 소리 | 월간 『공군』 홈페이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 공백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kyhmm6262@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5 2 6